

# “한반도 전쟁과 평화 다룬 판타지쇼”

소설 함께 펴낸 민혜숙 작가·노치준 목사 부부  
네이버 연재 ‘코리아 판타지’ 책 출간  
작가 상상력·목회자 관점 합한 ‘부창부수’



민혜숙(오른쪽) 작가와 노치준 목사



최근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 물밑접촉이 재개되면서 취소됐던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소재로 한 판타지 소설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소설을 작가와 작가의 남편이 함께 창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민혜숙 작가와 광주 양림교회(예장통합) 노치준 담임목사.

이들 부부가 함께 펴낸 ‘코리아 판타지’ (파이톤·사진)은 작금의 상황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기자는 최근 민 작가·노 목사 인터뷰를 갖고 소설을 쓰게 된 배경과 작금의 상황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랫동안 전문작가와 사모의 삶을 살아온 민 작가와 20여 년간 교수를 하다 목회자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노 목사는 님은 님의 님 다른 느낌이 묻어났다. 부부는 님은 님의 님이 아니라도 동일한 삶을 추구해온 이들에게선 학자의 이미지가 묻어났다.

민 작가는 연세대 불문과와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문학사상’에 소설이 당선돼 오랫동안 작가의 길을 걸어왔다. 반면 노 목사는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를 마치고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은 뒤 20여 년간 광주대 교수로 재직했다.

“소설은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닥치던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쟁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미국 진지들은 몇 달이라도 미국에 와 있으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민 작가는 “전쟁 위기가 돌던 당시, 남편은 매 주일과 금요일기도회 그리고 새벽마다 성도들과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환상을 보게 됐고, 보고 들은 장면을 글로 표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남편이 기도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약 400매 정도의 줄거리가 완성됐다. 여기에 민 작가가 살을 입혀 800매 분량의 소설이 탄생했다. 소설은 네이버 웹소설에도 연재돼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원제는 ‘코리아 판타지, 평화 아리랑’이었지만 출간 과정에서 편집자의 의견에 따라 ‘코리아 판타지’로 결정됐다.

“당시 상상 속에 어떤 특정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을 책망하는 것 같았고, 김일성 주석이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책망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노 목사는 그 상상이 ‘예언’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한반도가 위중한 시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평화를 향한 많은 간절한 바람이 그 같은 상상속에 펼쳐졌다는 의미였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부창부수(夫婦夫婦)가 따로 없었다. 민 작가는 “남편은 시를 좋아해 매주 주보에 시를 게재한다. 문학적 감성이 남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회학을 전공한 때문인지 일련의 한반도 정세를 목회자의 관점과 겹쳐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언급한 대로 소설의 줄거리는 작금의 상황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핵 위기가 고조되던 어느 날, 북한의 미

사일이 미국 영해인 하와이에 떨어진다. 미국은 북한 공격을 결정하고 한국에서는 안전보장이회의가 열린다.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 개시 전 1주일의 말미를 얻어낸다. 미국의 북한 공격까지는 남은 1주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탈출행렬이 시작되고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소개 작전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그 빈자리에 조선족 중국인과 고려인이 몰려든다.

소설에는 광주 출신 허구적 인물 정홍중 부대사도 등장한다. “광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광주를 등장시키고 싶어 정홍성의 손자로 허구적 인물인 정홍중 부대사를 설정했어요. 정홍중은 정홍성과 최종종의 이름을 합성해 만들었구요.”

민 작가는 소설은 판타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언서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상황을 핏진하게 그려낸 리얼리즘적 요소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 목사는 “합성현 선생의 말처럼 도적 같이 다가온 해방을 준비 없이 맞았다가 6·25 비극이 일어났다”며 “역사의 갈림길에 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이 빠르게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설의 주제는 평화다. 민 작가와 노 목사는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의 염원을 담아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세계 정치 무대로 확장해 서사화한 것이다.

작가로서, 목사 사모로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는 민 작가는 앞으로도 차가운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싶다고 했다. 바쁜 일상에도 소설을 쓰는 것은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꿈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작가는 1994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으며 ‘서울대 시지부스’, ‘황강 가는 길’ 등 작품집과 ‘용분석비평사전’, ‘법, 정의, 국가’ 등 다양한 책을 번역했다. 호남신학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겸임교수로 있다. 노 목사는 광주대학교 교수를 거쳐 양림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며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고 ‘교회본질의 사회적 배경’, ‘신학이란 무엇인가’ 등을 번역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담양이나 평창 어디쯤 방을 얻어다 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지실 마을 어느 집을 지나도/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수더분한 꽃들이 피어있는 마당을 보았다/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안으로 들어섰는데/아저씨는 솜뿔에 낫을 갈고 있었고/아주머니는 발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축축했다/저어,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일주일에 두어 번 와서 일할 공간이 필요해서요/나는 조심스럽게 한옥쪽을 가리켰고/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글쎄, 아저씨도 다 서울로 나가볼고/우리는 별채서 지낸게로 안채가 비기는 해

이유로 지척의 소재원과 식영정을 둘러 본 게 언제였는지. 올해 처음으로 열린 ‘달빛 내리는 밤의 가락’ 콘서트는 담양군, 광주시가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가사문학의 산실인 환벽당, 식영정, 소재원을 축으로 누정·가사문화자원을 관광명소로 키운다는 취지다. 고유의 문화자원을 잘 캐다면 ‘돌아오는’ 마을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무등산 자락의 지실마을은 성산별곡, 사미인곡 등을 쓴 송강 가사문학 산실이다. 이때문에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

## 마을이 미래다

라우/그라제만은 우리 이씨 집안의 내력이 짓든 데라서/땀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던 말이요...’ (나희덕 시인의 ‘방을 얻다’ 중에서)

옛그제 시인의 마음을 ‘홀린’ 담양 지실마을에 다녀왔다.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은’ 방을 구하는 대신 달빛 가득한 5월의 밤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가사문학관에서 펼쳐진 ‘달빛 내리는 밤의 가락’. 300여 명의 관객들은 고즈넉한 정원에 앉아 남도의 풍류와 달빛에 흠뻑 취했다.

이날 무대의 주인공은 소리꾼 박애리와 공연예술가 팝핀현준 부부. 판소리 흥보가의 백미로 꼽히는 박씨의 ‘박타는 대목’과 팝핀현준의 다이나믹한 춤사위는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공연이 무르익을 무렵, “이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언제든지)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부럽다”는 박씨의 인사말이 가슴에 와 꽂혔다. 바쁘다는

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마을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채 사업을 ‘끝내는 데만’ 급급해온 탓이다.

최근 광주시는 올 연말을 목표로 마을의 자연경관과 고유자원을 엮는 지실마을 공동체 연계사업에 착수했다. 3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다. 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사업의 성과를 전 주민과 소통을 어떻게 이뤄낼지 걱정이다.

근래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자체들의 화두이지만 지속가능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실제로 연연하는 행정편의주의는 밀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특히 올해는 무등산권이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뜻깊은 해다. 바라건대, 이번 ‘지실 프로젝트’가 무등산권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때론 ‘잘 만든’ 마을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제63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합창	니중장단	합주	타악
<b>&lt;심사위원&gt;</b> 김철웅(목포대 교수) 박호진(광주합창총연합회장)	<b>&lt;심사위원&gt;</b> 김능핵(목포대 교수) 김연주(초당대 교수)	<b>&lt;심사위원&gt;</b> 김능핵(목포대 교수) 김연주(초당대 교수)	<b>&lt;심사위원&gt;</b> 김철웅(목포대 교수) 박호진(광주합창총연합회장)
<b>◇ 합창 초등부</b> <b>▲ 최고상</b> 3 김나연 외 38명(화순제일초)	<b>◇ 관악 합주 초등부</b> <b>▲ 금상</b> 1 윤지호 외 47명(연제초)	<b>◇ 관악 합주 초등부</b> <b>▲ 금상</b> 1 윤지호 외 47명(연제초)	<b>◇ 관악 합주 초등부</b> <b>▲ 금상</b> 1 윤지호 외 47명(연제초)
<b>▲ 금상</b> 1 정운서 외 62명(광주송원초)	<b>◇ 관악 합주 중등부</b> <b>▲ 금상</b> 1 조영익 외 45명(석곡중)	<b>◇ 관악 합주 중등부</b> <b>▲ 금상</b> 1 조영익 외 45명(석곡중)	<b>◇ 관악 합주 중등부</b> <b>▲ 금상</b> 1 조영익 외 45명(석곡중)
2 김민주 외 56명(화순만연초)	<b>◇ 현악 중주 초등부</b> <b>▲ 최고상</b> 2 김소미 외 14명(광주송원초)	<b>◇ 현악 중주 초등부</b> <b>▲ 최고상</b> 2 김소미 외 14명(광주송원초)	<b>◇ 현악 중주 초등부</b> <b>▲ 최고상</b> 2 김소미 외 14명(광주송원초)
<b>▲ 은상</b> 4 강한결 외 37명(지오초)	<b>▲ 금상</b> 1 김채현 외 3명(전주우전초)	<b>▲ 금상</b> 1 김채현 외 3명(전주우전초)	<b>▲ 금상</b> 1 김채현 외 3명(전주우전초)
5 김경빈 외 28명(능주초)	<b>▲ 은상</b> 5 유하은 외 9명(초동연합팀)	<b>▲ 은상</b> 5 유하은 외 9명(초동연합팀)	<b>▲ 은상</b> 5 유하은 외 9명(초동연합팀)
<b>◇ 중창 초등부</b> <b>▲ 금상</b> 2 김윤지 외 11명(엔젤스하모)	<b>▲ 은상</b> 7 나태영 외 7명(광주삼육초)	<b>▲ 은상</b> 7 나태영 외 7명(광주삼육초)	<b>▲ 은상</b> 7 나태영 외 7명(광주삼육초)

## 독일 리베라투르상

### 한강·김애란 후보 지명

소설가 한강과 김애란이 독일 리베라투르상 후보에 올랐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두 작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산하 문학진흥단체 리트프롬에서 수여하는 리베라투르상 올해 후보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리베라투르상은 지난 1987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독일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문학상으로 매년 지역 여성 작가 1인에게 수여한다. 한국 작가 중에는 2003년 오정희가 2003년 ‘새’로 수상했고, 이혜경은 2004년 ‘길 위의 집’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리트프롬은 온라인 투표 결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책의 해’ 다양한 SNS 캠페인 도전해 보세요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도 북튜버’와 ‘위드북 캠페인’ 작품을 공모한다.

‘나도 북튜버’는 책을 소재로 제작한 동영상 공모전이다.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분량의 책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누리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위드북 캠페인’은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전으로 응모자는 책 표지를 신체와 합성하거나 책과 함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 사진을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면 된다.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응모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기간은 8월 20일까지며 ‘책의 해’ 누리집(www.book2018.org)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6959-7242. /박성천 기자 skypark@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